고창 문수사 석가삼불좌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8월 30일 문화재 9건 지정예고

最古 청동북 등 10건 보물 지정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선 중 · 후기에 만들어진 수준 높은 불상 등 불교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삼불형식을 보여준다. 삼불형식은 임진왜란 · 정유재란 이후 황폐해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삼불상은 1654년에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문도들이 주축이 되어 수조각승 해심을 비롯한 15인의 조각승이 참여해 당시 불교조각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함께 지정예고된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역시 벽암각성 문도들에 의해 제작됐으며, 해심 등 15명의 조각승들이 모두 참여했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흙으로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삼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일정한 두께를 얻은 후 조각하여 만든 건칠불상이다. 이 불상은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 8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 전반에는 제작됐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밖에도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 '묘법연화경 권5~7'과 14세에 요절한 성녕대군(태종 4째 아들)을 애도하기 위해 제작된 '묘법연화경 권4~7'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9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8월 30일 지정예고했던 '함통6년명 청동북'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특히 보물 제1907호 '함통6년명 청동북'은 865년(경문왕 5)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적혀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작연대가 새겨진 청동북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청동북은 범종(梵鍾)과 함께 사찰 의식 때 범음(梵音)을 내는 주요 의식법구로 불교 전래 이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민 기자

인문 · 현대과학 연계 불교 강좌 '봇물'

가을 맞은 불교계 강좌… 주제 다양 '눈길'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9월부터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올해 하반기에도 인문 고전부터 강독, 현대과학까지 주제도 다채롭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과학아카데미**와 **밝은사람들연구소**가 진행하는 '현대과학으로 풀어본 금강경' 강좌다. 오는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매월 1회 총 24회로 진행되는 강좌는 서울과 함양으로 나눠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열리는 함양 강좌는 이미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의는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연기법 · 공 · 중도 · 일심사상 등 불교 핵심 사상을 현대물리학적으로 해설하고, 불교수행법 의미를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핀다. 현대물리학의 주된 내용은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복잡계 이론 등이며, 인지과학은 인공지능, 뇌과학, 확장된 마음 등이다.

김성구 명예교수는 이화여대 물리학과 퇴직 후 동국대 불교학과서 학사,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불교와 현대물리학' '불교와 인지과학'을 강의한 바 있다. 관련 저서로는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천태사상으로 풀이한 현대과학〉이 있으며, BTN불교TV서 강의했다.

서울 강의는 매월 2번째 일요일 오후 4시 서초구 방배동 채식전문점 '마지' 2층서 열린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이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참가비는 연 15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과학아카데미 홈페이지(cafe.daum.net/healingwell)서 확인 가능하다.

불교과학아카데미, 2018년까지 현대과학으로 금강경 해석 강좌
중관학당, 중론 강독 강의 진행
불교고전 · 맛지마니까야 주제도

김성구 교수는 "과학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해석 · 적용시켜줄 수 있는 현대적 언어"라면서 "현대과학은 불교 사상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010)2391-5629

중관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중강좌도 마련됐다. (사)고려대장경연구소 산하 책박물관 고반재가 설립한 **중관학당**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제 1기 중론 강독 강좌'를 개최한다.

인도 타고르 대학 인도-티베트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신상환 박사가 강사를 맡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인도 티베트 불교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론〉의 산스끄리뜨어 원문과 티베트 번역과 한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강의는 1, 2주는 인도와 티베트 불교의 사상적 특징을 다루며, 3~5주는 중론에 대한 강독이 이뤄진다. 6주차에는 용수 보살의 〈회쟁론〉 등에 나타난 공사상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참가비는 15만원이다.

중관학당은 "이번 강좌는 대승불교의 근간인 중관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중관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전 강독 및 대중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10)8801-4037

불교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강좌도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오는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동국대 중앙도서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불교 인문 강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불교학술원에서 발간한 〈한국불교전서〉를 저본으로 한 강좌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불교 고전으로는 〈천태사교의(제관)〉, 〈법계도기총수록〉, 〈선문수경〉, 〈선문사변만어〉, 〈사명대사집〉, 〈사경지험기〉, 〈경허집〉, 〈무량수경연의술문찬〉, 〈정토보서〉, 〈염불보권문〉, 〈청허집〉 등이다.

강사로는 정토학 석학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 화엄학 전문가인 해주 스님을 비롯해 리영자, 신규탁, 김방룡, 황금연, 이철현, 성재현, 김형중, 오경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동국대는 "이번 불교인문학강의는 '불교 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한국불교학의 대중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불교 고전을 통해 한국불교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6713-5154

초기 경전 강독 강좌도 마련됐다. **근본불교연구회**는 9월부터 서울과 광주에서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함께 읽는 맛지마니까야 강좌를 개최한다.

9월 10일부터 서울 법련사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강좌는 총 8번 진행된다. 동참금은 20만원이며, 스님과 학생은 자율 보시다. 광주에서는 9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광주불교교육원에서 총 8강으로 열린다. 동참금은 서울과 동일하다. 서울 (010)4158-8317, 광주 (010) 3666-1953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동국대, 한국학 토대연구 사업 선정

불교문헌 서지DB 및 디지털 지형도 제작

동국대(총장 보광)가 '2016년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 사업'에 선정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하는 '2016년 한국학분야 토대연구 사업'에 김천학 HK교수가 선정됐다"고 8월 29일 밝혔다.

김 교수는 매년 2억 3천6백만 원씩 3년간 총 7억 8백만 원을 지원받아 '한국찬술불교문헌 확장형서지 DB 및 디지털 지형도 제작'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문헌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석서를 망라한 다양한 문헌들을 조사해 목록과 서지DB를 만들고, 해제 등을 작성해 텍스트의 계통과 사상적 내용을 추적해 본다. 또한, 관련 연구자는 물론 대중을 위한 디지털 지형도를 제작, 인문정보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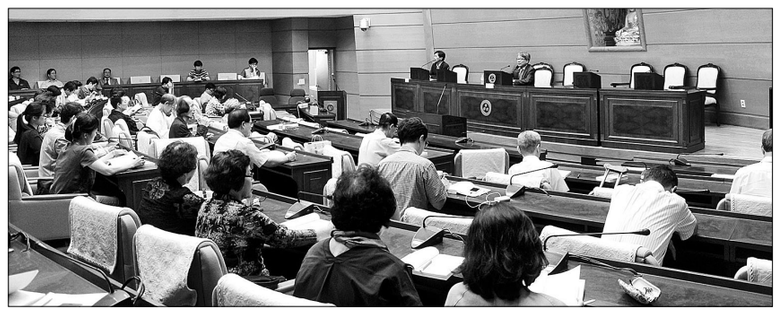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한국찬술 불교문헌의 여러 이본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석서를 새롭게 발굴 및 집성하고, 해제를 작성한다. 또한, DB는 그동안의 형태서지를 탈피해 내용서지를 통해 연결이 가능한 지식정보의 네트워크를 최대화하는 차세대 확장형 서지DB를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천학 교수는 "지식지도를 통해 문헌의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지형을 종횡으로 파악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헌 연구의 지형도를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다층적 사상의 특징을 추출하려고 한다"며 "불교학을 포함한 한국학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를 모색,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학의 보편적 확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분노 치유의 길, 지혜와 자비에 있다"

불교평론, 8월 26일 분노 주제 심포지엄
자비심 기반한 분노는 정당
실상 · 원인 직시가 우선돼야


불교평론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와 분노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지구촌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연일 테러 사건이 신문 지면에 실리고 층간 소음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살인 · 상해도 빈번히 일어난다. 하지만, 故 스테판 에셀이 이야기했듯이 정의로운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기도 한다. 불교적으로 분노는 배척돼야 할 현상일까? 불교적 관점에서 분노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평론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와 분노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 사회적 분노치유의 길' 발제를 통해 분노를 치유하는 길은 지혜와 자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파사현정에 입각하거나 중생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분노는 정당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실상과 원인을 여여하게 직시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비희사의 무량심에 이르고 심리적 치료를 하고, 공감능력을 높이면 개인적 분노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분노에 대해서는 "중생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분노는 크고 넓은 자비"라고 전제하면서 "희생과 증오 · 폭력이 없고, 중생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노는 정당하다. 연민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비로운 분노에 참여할 때 분노 없는 세상은 좀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분노의 불교사회학적 이해'에서 "시기나 사람, 계층, 집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대의 자본주의적 속물주의가 전통적 권위주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국민 대다수를 화병 환자 내지는 갑질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분노는 정치구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사회구조가 그 사회 내외적 분노, 혹은 자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분노를 확대재생산하는 세속 사회의 작동 방식을 비판하거나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마음, 태도를 성찰하는 실천 방법을 개발해 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우성 경희대 교수의 '붓다는 의분을 어떻게 보았는가', 오용석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의 '선 수행에서 보는 분노 문제와 자비' 신승철 정신과 의사의 '심리학에서 보는 분노'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8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열어서 발공능력까지 3~6개월 (주 1회 ~ 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제 6차크라 (제 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상담후 결정)
■ 문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